

반도체 기술도 타이완이 한국 추월?

특허청, 2000년 미국특허 취득 타이완 1135건 … 한국은 489건 불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타이완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의 반도체분야 미국 특허를 취득건수가 한국보다 월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이 미국 특허청 공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0년 반도체 기술분야에서 타이완기업 및 타이완인은 1135건의 미국특허를 취득한 데 반면, 한국기업 및 한국인은 489건의 특허를 취득해 타이완의 43%에 불과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세계시장			시장점유율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미 국	72,339	73,511	86,639	49.2	52.9	51.2
일 본	47,825	39,766	48,748	32.5	28.6	28.8
유 럽	14,809	14,497	17,323	10.1	10.4	10.2
한 국	9,937	8,379	12,262	6.8	6.0	7.2
타이완	2,255	2,814	4,163	1.5	2.0	2.5
합 계	147,165	138,967	169,136	100	100	100

자료) 한국반도체산업연감, 2000년6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또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체 특허등록건수도 타이완기업 및 타이완인이 2953건의 특허를 취득한 반면, 한국기업 및 한국인은 총 1741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데 그쳐 타이완의 59%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기업 및 한국인의 특허등록은 1998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타이완기업 및 타이완인의 특허등록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이완기업 및 타이완인이 한국에서 특허(실용신안 포함)를 등록한 건수는 2001년 11월말 현재 25건으로 일본의 1082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기술분야 미국특허 취득현황

(단위: 건,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합 계
일 본	1,144	1,218	1,572	1,857	1,939	7,730
타이완	249	314	496	759	1,135	2,953
한 국	158	235	386	473	489	1,741
한국/ 타이완	63	75	78	62	43	59

타이완은 최근까지 반도체산업 중 파운드리 분야에 주력해 세계 1위인 TSMC, 2위인 UMC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DRAM 분야와는 서로 시장이 겹치지 않고 한국의 파운드리 산업이 미미했기 때문에 상호간 특허분쟁의 소지가 적었다.

그러나 DRAM 분야에 있어서도 타이완은 1990년대 후반부터 DRAM 생산능력을 급속히 확대시켜 최근에는 DRAM분야에서 한국, 일본에 이어 3위 생산국가로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동부전자가 새로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했고, 아남반도체도 파운드리 전문기업으로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한국기업과 타이완기업들의 반도체 분야의 특허분쟁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미국특허 취득 및 특허전략 수립에 보다 많은 노력과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반도체 기술 한국특허 취득현황

(단위: 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한 국	1,048	1,637	4,452	6,071	3,893	2,282	19,383
일 본	436	556	1,049	1,358	1,274	1,082	5,755
타이완	0	1	3	11	13	25	53

+ 2001년은 1-11월 등록건수 기준

<Chemical Daily News 2002/ 01/ 07>